自由의 敵 가장 醜悪한 사나이

仮名 둘에 残忍한 性格

間諜 趙昶熙의 周辺

KAL기 납북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조창희(趙昶熙·43·東草市永朗洞131의8)는 가명을 둘(趙昌熙, 韓昌基)이나 갖고있는 인물이었다. 조는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삼정리에서 태어나 그곳 안중국민학교를 졸업하고 46년2월 양주 국방경비대 제13연대에 입대했다.

김천 영천의 육군교도소 헌병으로 근무하다 58년2월 CID속초파견대장으로 전속됐다. 61년 CID 양주 파견대장, 63년7월 CID 광주파견대에서 근무중 제대했다. 그후 속초로 옮겨 셋집을 얻고 어부들을 상대로 마작등 도박과 군수품판매브로커로 전전하며 뒷골목에서 지냈다.

경찰조사에서 67년1월부터 68년2월까지의 행방이 밝혀지지않고 있으며 68년3월부터 6개월간은 서울에있는 M여론사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한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69년3월 군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모(春川市)씨를 찾아가 군수품을 사주겠다면서 2백30만원을 사취하고 갚지않는등 3백여만원의 빚을 지고있었다.

그의 호적에는 49년 평택군 오성면 고향의 김은옥여인과 결혼, 장남(19·S고교졸업)을 낳은 다음 이혼, 51년 현재의 부인 정시화(鄭時嬅·38)여인과 재혼, 차남등 4남매를 두었다. 조는 재혼한 정여인의 아버지의 반대로 17년동안 혼인신고를 하지못하고 살아오다가 69년 호적재정리 당시 원적을 황해도 장단군 휴교면 휴교리로 하고 가본적을 포천군 포천면 신읍리로 옮겨 결혼신고를 마쳐 5남매를 입적시켰다.

그의 둘째형 영희(永熙·48·平沢郡古德面坐橋里)씨는 조가 제대후 사업을 하겠다면서 여태껏 쌀45섬을 빌어간후 갚지 않았고, 68년 부친상때 고향을 다녀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웃사람들에 의하면 조는 평소 비교적 조용한편이었으나 한때 잔인했다는것이며 사업차 서울에 간다면서 두서너달씩 집을 비우기가 예사였다. 그러나 월북전 20일간은 집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에 있는동안엔 중구 오장동 모여관에 하숙했는데 40대의 과부인 주인과 사귀다가 1년의 하숙비까지 떼어먹기도했다. 군 수사기관에 있었던 과거 경력을 이용, 항상 모기관원을 사칭해온 조는 서울서대문구 갈현동에서 시비가 붙은집을 가짜기관원의 위협으로 빼앗아 주고 방한칸을 얻어 산적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웃에서는 조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고 말하고있는데 부인이 삯바느질과 돈놀이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었다.

빚 3百萬원, 女子관계 복잡

機関員 詐称…공갈-詐欺행각

도박-브로커…달포씩 집비우기 일쑤

범인조는 범행직전 집에 틀어박혀 제대당시 갖고 나온 45구경권총과 실탄(7발)을 손질하면서 『내가 없더라도 딴남자와 결혼말고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알쏭달쏭한 당부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는 범행날 3일전인 작년12월8일 서울행 KAL기표를 처음샀는데 그때 내세운 구실은 서울에 40만원짜리 전셋집을 얻어 놓았고 아내가 하열을 해서 치료도할겸 서울로 간다고 말을 퍼뜨렸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연기되자 다른손님 10명과 10일표로 바꿨으나 조는 11일 오전9시 비행표로 교환해놓고 강릉의 근화여관에 투숙, 한창기(韓昌基·공무원)란 가명을 숙박부에 적어놓고 숨어있었다. 시종 마스크를 쓰고 행동한 그는 KAL기에 탑승때에는 버스에서 신문을 보고있다가 최후로 비행기에 오르면서 보통손님이 잘앉지않는 조종실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人類의 良心」에 呼訴하고

KAL 拉北승객帰還촉구使節団帰国보고

서울行 飛行機서 꿈解夢도

国赤에 보낸 北傀電文…유치해 白紙취급

教皇도 祈求…英·伊적극협조

◇金浦空港에서 교섭경과를 말하는 民間使節団員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납북된 KAL기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섭을 벌이고 14일 저녁 6시55분 金浦공항착 귀국한 民間使節団 일행4명은 被拉搭乘者들이 이날 오후5시 자유의 다리를 건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믿어지지 않는듯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곧 굳어진 표정은 [illegible] 『오면서 사태의 진전이 없어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의외의 푸짐한 선물에 눈물이난다』고 했다.

이들 民間使節団일행은 板門店의 軍事停戦委에서 유엔군측의 송환노력이 北傀의 상투적인 정치공세로 벽에 부딪치자 지난달 25일부터 20일간 제네바에있는 国際赤十字委員会와 英国,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등 欧亜5개국의 赤十字社를 순방하며 피납자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직접 전하고 납북자들의 빠른 귀환을 위해 적극개입해줄것을 호소했었다. 일행이 홍콩에서 타이페이(台北)경유 서울행 THAI기에 탑승한것은 이날 오후1시30분께.

비행기에 오르자 납북된 玄啓煥(31)씨의 부인 李玉珠(31)여인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인솔자 尹汝訓(34·大韓赤十字社渉外部幹事)여사에게 『간밤에 꿈속에서 바닷물을 보았는데 어떠냐』고 물었다. 尹女史가 『물꿈은 좋은데 [illegible] 바닷물이라니 吉兆』라고 해몽하자 여태껏 침통하던 일행의 분위기가 걷히고 李女人은 『꼭 오늘 남편을 볼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혼의 단꿈에서 깨어나기 전인 結婚 6개월만에 남편을 빼앗겼던 李女人은 남편을 만나면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느냐?』고 첫말을 건네겠다면서 얼굴을 붉혔다.

한편 스튜어디스 成敬姬(25)양의 아버지 成忠永(49)씨는 마중나온 부인 李後徳(47)여인과 아들 成鎭(20·建国大1년)군등 4남매로부터 成양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노려보듯 북녘을 응시했다.

『북괴가 国際社会 孤児라는것을 확인했읍니다』 尹女史는 그들이 탑승자들을 長期不法抑留시킨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호소력이 있었다면서 『최근 航空機拉致사건이 빈번해도 기체와 승객을 곧 송환시키는데 北傀만이 보내지 않아 強盗視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인가요? 北傀赤十字社가 国際本部에 보낸 電文의 내용들이 어찌나 유치한지 웃음도 안나와요. 심지어 国赤幹部들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 완전히 백치취급을 당하고있었다』고했다. 尹女史는 国赤을 비롯한 각국적십자사들의 반응은 눈물이 날 정도로 好意的이었다고 말했다.

『사정을 전할 틈도 없이 그들의 慰労攻勢와 협조약속을 받으니 얼떨떨했어요. 특히 英国과 이탈리아에서 받은 대접은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1월27일 마르셀 나빌 国際赤十字社 総裁가 베푼 晩餐会에 초대되어 따뜻한 대접을 받은 일행은 로마 教皇 바오로 6세를 20분간 알현하는 자리에서 教皇의 제의로 拉北者들의 송환을 위해 [illegible] 한마음으로 기구한 영광스러운 추억이 되리라고 입을 모았다.

『파리에서 납북자들이 旧正안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外信報道를 읽고 목적지인 로마에서 귀국할 차비를 했어요. 정작 로마에서 이꿈이 깨어졌을 때는 절망했지요』 李玉珠女人은 그순간을 회상하며 『教皇께서 내손을 잡고 기구하지 않았던들…』 말을 잇지 못했다.

『北傀가 이번 일부 승객을 계속 억류시킴으로써 非人道性이 공공연히 드러난 이상 세계의 양심은 이를 묵인하지 않을것입니다』 일행은 탑승객들이 귀환할때까지 계속 투쟁할것을 다짐했다. 〈岩〉

혐의풀려 기쁘기 한없다

못돌아온 사람…親知들은 말한다

경찰발표 경솔 비난

스튜어디스들 "돌아올때까지 기도"

얼마나 苦生…동료들 울먹

4명의 동료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KAL의 조종사들과 스튜어디스들은 북괴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다시한번 분개 하면서도 부조종사 崔石鎬(39)씨의 혐의가 풀린것을 기뻐했다.

崔씨와 바둑친구였다는 조종사 張太鎭(42)씨는 『지난해 8월 DC-4기를 조종하고 済州島에갔을때 스튜어디스로부터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崔씨는 착륙하자마자 空港보안관에게 알린일이있다』면서 『그이가 돌아와 죽는한이 있어도 간첩이아님을 밝히고 싶다』는 崔씨부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군복무시절에 상관이었던 조종사 洪淳相(42)씨는 北傀가 납북사건을 두조종사의 「의거」로 선전한것은 崔씨를 범인으로 단정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라고 지적, 당국의 경솔했던 수사를 나무랐다. 洪씨는 또 귀환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속았다』는 두사람의 말에서 그들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할수있다고 말했다.

동기인 成敬姬(25)양의 입사동료 스튜어디스 鄭恵淑(23)양은 成이 도착하자 승객의 안전을 먼저 걱정했다는 귀환자들의 증언을 들었을때 스튜어디스다운 침착한 행동이었다고 칭찬하고 두동료가 추운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느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KAL의 스튜어디스들은 16일 동료들이 돌아올때까지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기로 결의했다.

못돌아온 사람… 各界의 소리

◇남편 황원씨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 양석례(34)여인이 울음을 터뜨리고있다.

할수있는 支援 다 하도록

또한 미송환자들에 대해 각계인사들은 『무조건 빨리 보내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金明会(延世大 政法学長) 교수=정부는 国際赤十字社, 유엔등의 외교적 채널을 통해 계속 여론을 환기시키고, 민간단체들도 민간외교를 통해 적극 정부의 교섭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李英然(22·梨大新聞放送学科3년)양=未送還者들은 모두가 家長들인것으로 안다. KAL사측에서도 책임이 있는것이고 정부나 국민들은 미송환자들의 가족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일을 해야할것이다. 생활보장, 원호비지급, 남은가족의 직업알선등도 고려해야한다.

▲李愚碩(29·農協中央会 秘書室근무)씨=北傀의 악랄한 만행에 울분을 금할수없다. 하루속히 나머지 11명도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韓義錫(24·延世大商学科3년)씨=北傀와의 직접협상은 있을수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国際赤十字社나 제3국을 통한 외교로서 이문제를 흐지부지 끝내지 말고 줄기찬 노력으로 해결했으면 한다.

▲柳光子(28·東亜出版社 編輯室근무)양=北傀가 그들을 계속 억류하고 있는것은 졸렬한 보복감정이나 세뇌에 의한 이용가치등을 노리는것같다. 이 기회에 국민들은 더 한층의 자각과 세계여론에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圓舞 (78)

李清俊 作 / 金榮注 画

눈먼 妖精 ⑦

그러나 윤희가 느닷없이 진결의 빰을 갈긴것은 부끄러움 때문인게 분명했다. 그녀는 엉겁결에 오른손을 움츠리며 쩔쩔매 자신에게 놀라는 표정이더니 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리고는 어쩔줄을 몰라 오던 길을 다시 뛰어내려 가려고 했다.

그러나 진결은 이미 윤희의 한쪽 팔을 꼼짝도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

『달아날 건 없어요. 전 화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별채에서 제 빰을 때린 사람은 아직 김의원하구 윤희씨 두 사람 뿐이거든요.』

실상 진결도 빰을 맞은 순간에는 속이 울컥했던게 사실이었다. 설마 빰까지 갈기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심을 하고 있다 별안간 당한 일이라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진결은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는 오히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별채에서 내 빰을 갈겨보지 못한 녀석이 아직도 둘이나 남아 있군.

그는 마치 별채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돌아가며 빰을 얻어맞아 주고 있는듯한, 그래서 나머지 두사람에게도 언젠가는 마저 빰을 맞아 주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되고 있었다. 생각이 자꾸만 그렇게 엉뚱한 쪽으로 흐르자 진결은 은희에게서 귀빰을 얻어맞은 것까지도 이젠 오히려 재미있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섭섭하군요. 전 그저 신기한 춤을 한번 구경시켜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나 윤희는 아직 진결의 팔을 벗어나려고 비비적대고만 있었다. 그녀 역시 이젠 김의원들에게 눈치를 채이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껑껑거리면서도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 진결은 그러는 윤희가 더 재미 있었다.

─팔을 놓아주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는 곧 윤희의 팔을 놓아 주었다. 그러나 윤희는 이제 길을 뛰어 내려가려고 하진 않았다. 팔에서 풀려나자 멍하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진결을 마주 바라보고만 있었다. 한동안 거칠게 몰아쉬던 숨결도 차차 가라앉아 가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윽고 윤희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허선생님은 아마 저에 대해서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다구요? 천만에요. 오해구 뭐구 언제 윤희씨와 저 사이에 그런 감정의 긴장이 있어 본일이 있나요?』

진결은 자기가 뭘 오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윤희의 말이 궁금했다. 그러나 그는 제법 무관심한 체 시치미를 뗐다. 윤희는 여간 다부지게 대들어오질 않았다.

『오해가 아니라면 왜 절 이곳으로 데리고 왔지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아까 별채에서 바다구경을 가자고 앞을 선 것은 바로 그렇게 묻고 있는 윤희 자신이었다. 한데 그녀는 지금 진결이 자기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경위야 어느 쪽이든 윤희의 이 물음은 진결을 여간 당황하게 하지 않았다.

『아니, 제가 누굴 이곳으로 데려왔길래요? 먼저 바다구경을 가자고 나선 사람은 누구였지요?』

『하지만 허선생님은 일부러 여기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게 그걸 보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윤희는 진결의 속셈을 정확하게 집어냈다. 오늘 일에 무슨 눈치를 채고 있는게 분명했다. 진결은 다시 절끔해졌다.

윤희는 좀더 말을 계속했다.

신수입

좋은약은언제나 소화제 파-지 三星新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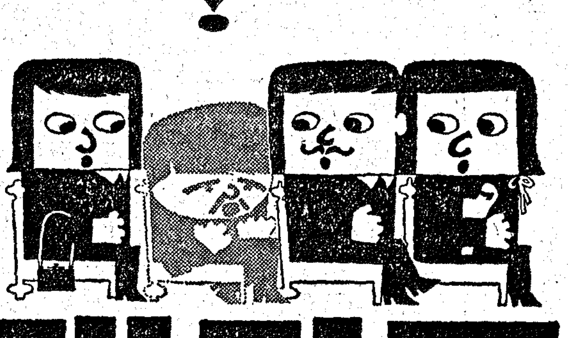
가족계획으로 행복한가정을!

먹는피임약

오부렌-21 220원

SEARLE 미국·지·디·써-ㄹ 회사

기침에!



데티곤

独逸바이엘薬品〈원료·기술〉제휴

50cc/140원 18정/200원

BAYER

기침이 심하면 본인도 괴롭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칩니다. 속히 우수한 기침약을 선택해서 치료하세요. 독일바이엘약품의 처방으로 제조된 「데티곤」은 기침발작을 진정시키는 성분, 가래를 없애는 성분, 목을 부드럽게 하는 성분등이 적절히 배합되어 심한 기침이라도 효과가 좋습니다.

적응증: 감기기침/해소기침/어린이기침/가래기침/기관지염, 폐결핵 등으로 인한 기침억제에.

*来日의 世界를 건강하게

HANIL 한일薬品

풍요한 내일은 전력채권으로!

한국전력에서는 정부의 자립경제 제제확립에 호응하고 의욕적인 70년도의 전원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유리한 전력채권을 발행하게 되었아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특징
- 원리금상환은정부가보증
- 년 이율 24%
- 무기명으로 환금용이

◇ 종류…(4종) 5,000 10,000 50,000 100,000
◇ 청약기간…2월20일~4월4일
◇ 청약장소…전 국 각 은 행 본 지 점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전력 사업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국전력주식회사

서울시 지정 우신자동차학원

면허시험은본학원에서실시

◎기숙사실비제공

◎본과16주◎속성과·야간과8주

(마감) 2월20일·청량리(노타리 농협옆) 중랑교(56번뻐스종점)

☎1332·8672

인사의 말씀

김활란박사를 위한 고별예배가 지난 2월14일 생전의 그분의 뜻대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노래가 가득찬』 가운데 거행된후 그분이 금란동산에 편안히 쉬시게 된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지극하신 도움의 덕분이였읍니다.

이화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저희들은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그분의 뜻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육의 발전에 진력 하겠아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을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七〇年二月十六日

김활란박사 사회장 위원장 김 일 환

이화여자대학교 총 장 김 옥 길

(祝)入学

学生服의 先駆者!

♠보다 질기고…
♥보다 값싸게…
♦보다 품위있고 세련된 멋을!
♣전통과 신용을 자랑하는… 신생학생복!

신생학생복

모자/가방/체육복/구두 등 — 완비

신 생

본사: 서울종로백화점2.3층 TEL:㉒0585-8

부산직매장: 시청앞광복동입구학생복쎈타(국부사) ㉒1730

대구직매장: 대구백화점3층 TEL ③5031-4

광주직매장: 광주시민회관옆한성빌딩1층 (전화) ②3950

国民大学 新入生 追加募集

一、募集学科 法学科、行政学科、経済学科、経営学科、家政学科、食品営養学科 各若干名

二、試験日字 一九七〇年二月二十六日

編入生 募集

一、募集学科 各学科 二·三学年若干名

二、銓衡日字 一九七〇年三月二日

서울特別市鍾路区昌成洞一一七

電話直通 ㉓七五四四 交換㉓〇一八一~五

国民大学

仁徳実高 学生募集

一、모집인원 一학년〇〇명 (농공·축산·원예과) 二학년편입생약간명(〃)

二、원서접수 二월十二일-二월二十一일

三、전형일자 二월二十三일

서울특별시城北区月溪洞 (전화) ㉒〇九八七

義平大人 義興芮公東植氏以急患三月十六日午後十二時十分(陰正月十一日)於 自宅別世玆以告訃

永訣日時 二月二十日午前十時
永訣場所 서울特別市鍾路区唐珠洞五七의一
葬 地 서울特別市城東区忘憂里家族墓地

一九七〇年二月十六日

嗣子 義平 義明 義星 文恵 鳳恵(在美中) 鳳恵(在美中)
女 武恵
婿 洪元憲 金允憲 金順成(在美中) 芮善錬(在美中)
親族代表 芮東奎
友人代表 李建洙
護 喪 金相億

護喪所 鍾路区唐珠洞五七의一 電㉓1474

(個別訃告省略)

当社前副社長義興芮公 東植氏以急患二月十六日午後十二時十分(陰正月十一日)於自宅別世玆以告訃

株式会社 柳韓洋行

姜烔鎭大夫人 金海金氏順禮以老患呻吟不幸於二月十六日(陰一月十一日)午前十一時四十分自宅別世玆以告訃

発靷日時 一九七〇年二月十八日午前十一時
発靷場所 市内東大門区普門洞七가一二四一四
葬 地 京畿道楊州郡州内面南坊里(家族墓地)

一九七〇年二月十六日

嗣子 烔鎭
孫 烔權 烔台 一成 潤成
姪 真成 俊成
孫婿 李世来(在美) 梁燦奎(在美) 崔海用
親族代表 姜漢仁
友人代表 李壽溶
護 喪 尹宅重

(個別訃告省略) 連絡電話 ㉒六五一〇 ㉘三一六七

当社常任監事 姜烔鎭大夫人金海金氏順禮以老患呻吟不幸於二月十六日十一時四〇分 自宅別世玆以告訃

一九七〇年 二月 十六日

東南合成工業株式会社

当社工場直売所所長 姜一成王大夫人金海金氏順禮以老患呻吟不幸於一九七〇年二月十六日十一時四〇分自宅別世以玆告訃

一九七〇年二月十六日

大韓合板商社